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제1독서 : 스바3, 14-17

제2독서 : 필립4, 4-7

묵 음 : 루가3, 10-18

숲 정 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립 4, 5)

강 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석구 신부/신품 천주교회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성탄은 세상에 희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들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하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요한세자의 말을 들어 보자.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오리까?”하고 그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이 말씀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행위에서 출발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선 가진 것을 나누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갈 몫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부터 생각해 보아야겠다. 나누기 전에 먼저 정의로운 삶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어 세리들과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세금은 ‘정한대로만 받으라고’ 했는데 군인들에게는 ‘협박하거나 속임수로써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빌어 보면 공무원은 그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이었다. 직위를 남용해서 부정하게 살지 말라는 당부 말씀으로 생각된다. 오늘 복음에 세리와 군인들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런 직업에 부정의 유혹이 많았나 보다. 그렇다고 그들의 직업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대함은 없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정에 연루된 공무원들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아온 동료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준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절망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음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와 선의의 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 보자. 그리고 높은 하늘을 쳐다보자.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분의 전능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믿는다. 그분 앞에 불가능이란 없다. 함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빌자. 그리고 기억하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가려 내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태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죄악의 길을 버리고 용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하느님 곁으로 모이자. 올해에도 변함 없이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자.

소 리

세밀을 따뜻하게

세(歲)밀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부산하다.

연중 찾아 뵙지 못한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가까운 친지들과 오붓한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또 성탄과 새해 인사를 겸해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기도 한다.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훈훈한 인정이요, 덕목(德目)이기도 하다. 간혹 도에 지나친 친목회나 망년 회로 주위의 눈총을 받는 일도 있으나 근래에 와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연말이면 차가운 눈보라와 뽕뽕 언 대지(大地)를 연상한다.

그래서 그런지 훈훈한 인정과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 하게 된다.

그러나 따뜻함과 훈훈함 속에서 우리는 간혹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지친 이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다.

이러한 일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지 사회 각계 각종에서 연말이면 항상 불우이웃돕기운동을 해 왔다.

금년에도 12월 들면서 각 언론기관이 앞장서 이 운동을 펴고 모두에게 십시일반(十匙一飯)을 권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나의 조그만 정성이 춥고 외로운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진다면 그 보다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마침 지난 달 숲정이 성당이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모두를 전주교구 사회복지회에 전달했다는 소식이다. 거기 더해서 숲정이 본당 신자 중 1천41명이 사회복지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모두가 세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다. 모든 분당으로 퍼져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

숲정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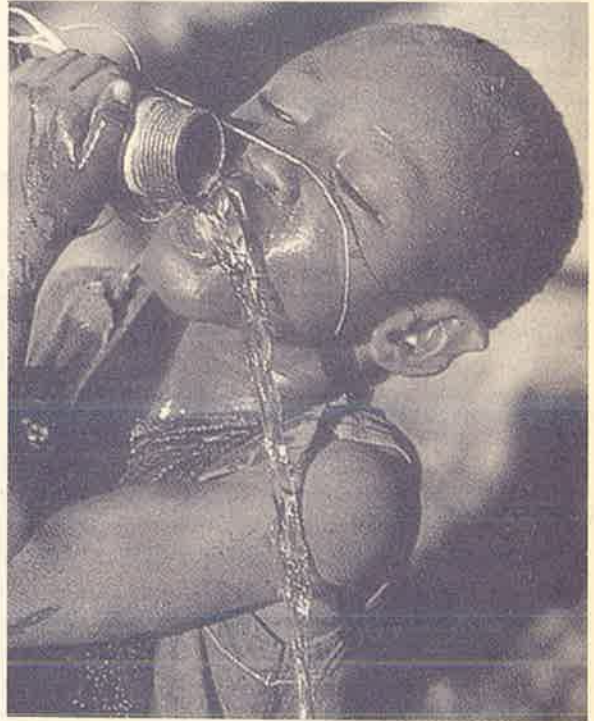
자선활동은 정의로운 회개의 삶입니다

정의에 기반을 둔 자선활동은 진정한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의가 없는 자선활동이 자기 기만에 빠지듯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을 유발합니다. 자선은 사랑에 의한 사랑의 활동이며, 이렇듯 순수한 사랑은 성령에 의한 회개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정의도 자선도 할 수 없습니다.

자선은 자기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에 앞서 다른 이에게 갈 몫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 정의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각자 자기 신분에 따라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은 자기와 타인을 위한 일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타인에게 봉사하고 타인을 위한 자선활동이 됩니다.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야 한다”(루가 3,11). 이 세상의 재화는 인류 공동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성 대 그레고리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온 자선은 사랑으로 자기를 봉헌하게 만듭니다. 인류의 비참함을 짊어지시고 형제들 중 가장 미소한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큰 자선의 축제일입니다. 이 축제는 각자 신분에 맞는 삶으로 자기에게 부과된 책무를 다하고 이 지상의 재화를 공유하는 정의실현의 축제이고, 물질과 육체적 노예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의 축제일입니다. 또한 이 축제는 굶주린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옷이 있으며 병



자와 감옥에 갇힌 이들은 따뜻한 방문이 있는 육체적 자선의 축제일이고, 서로 용서해 주고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서 지지해 주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조언해 주며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정신적 자선의 축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을 정의와 사랑이 꽃피는 자선의 축제가 되도록 하여,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함께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합시다.

1994. 12. 11. 대림 제3주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석희 주교

완구의 모든 것

발육완구 · 학습완구 · 각종게임기류

아카데미 완구

중앙국교 앞
박한웅(요한)

☎ (0654) 446-1853

아이들 세상

군산역 앞
김현자(수산나)

(0654) 43-4536

조주장 한의원

비만클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피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주장(이나시오)
차숙(글라라)

코아전너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제9기 '95학년도 원아모집
새나라종합학원

장동철(아오스딩)
김은숙(까리따스)

서신동 우신APT 입구

☎ 72-8415, 8465

잡간

요심이 (1111) 김병오

르완다 난민돕기 운동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해외 긴급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르완다 난민돕기 특별모금 운동을 가톨릭 신문과 평화신문의 협조 하에 지난 8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각 매스컴의 경쟁적인 현지상황 보도와 각 교구 사회복지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힘입어 11월 말 현재 11억원에 이르는 성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구는 11월 현재 22,751,280원의 성금을 모아서 지난 9월 22일에 4,970,000원 그리고 12월3일에 나머지 17,781,280원의 성금을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 송금하였습니다. 이번 모금운동에는 많은 본당이 자발적으로 2차현금을 실시하였으며, 화산동 본당의 경우에는 주일현금을 그대로 성금으로 보내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덕진본당은 신자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난민돕기 특별 바자회를 개최하여, 그 수입금 미화 1만달러(한화 810만원)를 보내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예비신자,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참여한 이번 모금운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며, 지구촌의 한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아진 성금은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로마의 국제 까리따스 본부를 통하여 르완다 난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르완다 난민 돕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교구소식

1. 참사회 : 12월13일(화) 오전10시 교구청
2. 재무평의회 : 12월16일(금) 오전10시 교구청
3.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12월18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85-0041(홍보국) *초보자 가능함
4. 예비신학생 월례모임 : 12월18일(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5. 혼인강좌 : 12월18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인당 10,000원
6. 성세대상자 피정 : 12월18일(일) 천호 피정의 집, 강사-박종근 신부
7. 레지오 마리에 단원교육 : 12월12일(월) 오후7시 전동 성당, 강사-김봉희 신부, 고흥석. <전동 Co.에서는 Co.산하 전단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8.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 12월18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9. 종교음악연구회 월별교육 수료식 및 미사 : 12월12일(월)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감 · 사 · 합 · 니 · 다

휴스턴 한인천주교에서 페류 선교지에 트럭(Toyota Pick up) 1대(미화 9,647달러)와 전주교구 홍보국에 소형 비디오 카메라 1대(미화 2,390달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 **성소모임** 까리따스 수녀회 : 12월18일 오후2시 덕진성당 (0652) 72-5304
성모영보수녀회 : 12월18일 오후2시 상지원 수녀원 (0653) 862-0880
스승예수제자수녀원 : 12월18일 오전9시30분 서울본원 (02) 946-0418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세 호 남(전주역 앞) 243-1413
효 자(삼천향APT 앞) 221-8331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 11월20일마감, 12월배달)

문의 :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우편통신에 의한 신학공부(2년제)

- 대상 : 전신자(연령제한 없음)
- 과목 : 성서, 신학전반, 영성
- 접수기간 : 95.1.4~95.1.25
- 원서청구시 소액환 4,030원
- 서울 종로구 혜화동90-12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 747-8501



감사드립니다

모친(김귀남 수산나·66세)을 잃은 저희들을 위로해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신 주교님, 신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성기 신부 · 오복기

사무장 구함

1. 자격 : ①영세한 지 3년 이상(남) ②운전면허 소지자 ③전문대 이상 졸업자 2.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연락처 명기) 사진부착 ②세례증명서 1통 ③본당신부님 추천서 1통 ④주민등록등본 1통 3. 서류접수 및 문의 : 월명동 천주교회(0654)42-2041

사무장 구함

1. 자격 : 천주교신자로서 성실 열심한 자(남)
2.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연락처 명기) 1통 ②교적사본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3. 서류접수 및 문의 : 서학동 천주교회 사제관 84-8307

우편으로 하는 성서공부 시청각통신성서 신입생 모집

신구약성서 입문(2년)
①구비서류 : 입학원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반명함판사진 2매 ②원서교부 및 접수 : 매년 12월~1월20일 ③원서대 : 3,000원 ④교부처 : 전국 성바오로 서원 및 본교육부 ⑤문의 : (02)987-4004, (0652)252-339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 무 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랑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대림 제3주일
◎ 오늘은 자선 주일입니다(2차헌금 있음)
1. 자비의 모후 서기 경질: 노광용(비오)→이봉기(마리오)
수고하시겠습니까.
2. 영세자 집중교리: 13~16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영세식-18일 전 9시(영세자들께서는 대부, 대모님들과 함께 8
시30분까지 입장하세요)
3. 올트레아 단합대회: 12일 후 6시 정교회관
4. 부녀회 정기총회: 13일 어머니미사 후
5. 본당 판공 안내
· 17일-국민학생 후 3시
· 18일-중·고생 후 4시
· 21일-중노구역 후 3시~5시30 저녁미사 전후
· 22일-남노, 인후구역
· 23-기타 구역(손님신부님) 후 3시~5시30분 미사 전후
6.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제축형제회(17일 후 2시)
③대건회(18일 장엄미사 후)
7. 금주 청소: 중노10, 11반
차주 청소: 중노12반, 기린봉 1반
□ 지난주 봉헌금: 1,029,740원 □ 교무금: 1,878,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 무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자선의 날 2차헌금 있음
1. 프란치스코3회: 12월11일(오늘) 오후 2시
2. 성심회: 12월13일(화) 오전 10시30분
3. 성모회: 12월18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94년 성탄 합동 참회예절: 12월14일(수) 오후 8시
※성탄 판공성사는 미사 전후로 자유롭게 보십시오.
5. 영세식: 12월17일(토) 저녁미사
6. 예비자 집중교리: 12월13일(화)~16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
7.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12월18일(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936,750원 □ 교무금: 2,289,000원

*** 북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무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보좌신부 86-3032 수 너 원 86-3454 보좌신부 장 삼 호
사목회장 황 길 평

1. 오늘은 자선주일: 2차헌금 있음
2. 성탄 판공성사: 13일(화) 다가동, 고사동, 14일(수) 태평동,
학성, 직장인
성사시간: 13일-16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17일(토) 오후 3시-5시, 오후 7시-9시
판공성사표 사무실에서 드립니다(95년도 달력도 드립니다)
3. 임루시아 수녀님 영명축일: 13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레지오 전단원 의무교육: 12일(월) 오전 9시 전동 성당
5. 요셉회, 해설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6.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7.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8. 부녀회: 15일 오전 10시
9. 성우회 정기총회: 18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10. 사무실 난로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당 청소: 12월17일(토) 자비의 모후Pr, 사랑하을 어머니Pr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유경수 부부
봉헌-황갑순 가족
차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나정섭 부부
봉헌-이준철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05,510원 □ 교무금: 2,686,700원
□ 감사헌금: 30,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무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이 완 재
F A X 82-6232 유 처 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행

- ◎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1. 금주: ①자선주일 2차헌금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④사목회(후 8시)
2. 사라회: 13일(화) 오전 11시
3. 돈·보스코회: 14일(수) 오후 7시30분
4. 구역반장 회의: 15일(목) 오전 11시
5. 처주: ①바비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6. 감사합니다: 십일로 감사헌금 55만원(익명)
7. 축! 사베리오회 창립: 회장-노병설(프란치스코) 부회장-주
환(다우), 홍계춘(새자요한) 총무-김동욱(마테오) 재무-김진
준(야고버) 감사-정종원(마테오), 진일탁(새자요한)
□ 지난주 봉헌금: 1,979,780원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 무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설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입니다-2차헌금
1. 탈상미사: 11일(오늘) 오후 5시 신흥회 서정회(안나)씨 데
2. 모임: ①자모회, 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0일(토)저
녁
3.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12일(월) 저녁미사 후
4. 구역미사 및 판공: 13일(화)-신흥,백암, 14일(수)-어두, 15
일(목)-마치,수월, 16일(금)-색창
5. 성탄절 성가연습: 13일(화) 저녁미사 후부터
6. 성탄절 장식꽃 봉헌바랍니다: 수녀님
7. 성탄절 불우이웃돕기 성미 봉헌: 정성껏 봉헌합니다.
8. 영세자 특별교리 및 본당신부 면담: 21일(수)
9. 성탄절 행사: ①초·중·고 예술제-24일(토) 저녁 ②떡국파
티-저녁 9시30분 ③구역축성 및 경배예식-저녁 10시 ④예수
성탄 전야미사-저녁 10시30분 ⑤영세식-전야미사중에(18명)
10.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25일(일) 10시(주일학교 은총시장)
11. 성탄절 특별 감사헌금: 24일(토) 전야미사중
12. 금주 청소: 신비로움 장미Pr
13. 차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14.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정광섭 ②김금자
봉헌-정만수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이우동 ②송정자
봉헌-황옥섭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14,700원 □ 교무금: 484,00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 너 원 87-0229 주임신부 이 재 후
사 무 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 삼 근

- ◎ 자선활동은 정의로운 회개의 삶입니다. 자선 헌금의 날
1. 판공성사 일정: 전 9시-12시, 후 2시-6시, 저녁 7시 이후.
14일-1구역~8구역, 15일-9구역~17구역, 강남구역
외지 근무자 및 기타 구역-토, 일요일 미사 전후
2. 병자 판공 봉성제: 16일 전 9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3. 사목회 상임위원회: 13일 후 8시 성탄행사 의견 제안
4. 회의: ①빈첸시오회-14일 어머니미사 후 ②평화기사회-15일
후 9시 ③한빛회, 임마누엘-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④청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⑤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⑥청년 성
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⑦성소후원의 날-오늘 공식미사 후,
화미-매 미사 전후 남부
5. 출입감좌: 다음주일 전 9시 가톨릭센터 20일 전 혼인신청
6. 전입을 환영합니다: 코오롱APT-이춘자(테레사) 8/806 ☎223
-2309 김길용(요한) 8/1305 ☎222-4623 진수연(회순무시아)
9/1503 ☎223-6864 박종명(미카엘) 7/602 ☎221-8752 이순덕
(레지나) 3/205 ☎223-9755 이정식(돈보스코) 8/202 ☎223-
7229 유정희(모니카) 5/1301 ☎223-5120 임미경(세실리아) 6/
1202 ☎223-6887 황호재(발라라) 3/1601 ☎222-2028 이생구
(올리비아) 12/1002 ☎222-2972 문영실(수산나) 10/1501 ☎
222-6208 정인섭(안드레아) 3/1501 ☎225-5947 서근순(아가
다) 6/1204 ☎221-5650 이화경(마리아) 7/1604 ☎221-3041
□ 지난주 봉헌금: 1,217,850원 □ 교무금: 3,315,000원